



**A**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면, 치은에서 접근하는 clasp (I-bar clasp 등)가 별무리가 없으면 선호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치아에 torque를 야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국소의치 설계시에 여러가지 고려 사항들을 살펴본 후에 결정해야 하겠지만 distal extension 증례에서는 무엇보다도 지

주위 위해서 binding clasp를 써주는 것이 좋다. 특히 하악의 경우에는 잔존치조제에 의해서만 지지를 받기때문에 치조제의 흡수가 심하고 치은조직이 약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non-binding clasp (I-bare 등)의 적용은 극히 불량한 예후를 가져올 수 있다.

3. 증례 3과 같은 경우에는 잔존치조제 및 기타 조직으로 교합압을 많이 분산시키기 위해서 non-binding clasp (I-bare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치은쪽에서 접근하는 clasp의 금기증은 치조골의 협측의 치은변연 하방에 undercut가 있을 때이다. 이러한 clasp의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것은 approaching arm이 하방조직과 떨어져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음식물 잔사가 끼일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치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non-binding clasp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RPA clasp(그림 1)의 적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 Q : Distal extension partial denture의 증례에서 어떤 clasp가 좋은가?

대치의 치주건강도와 잔존치료제 및 기타 supporting tissue의 건강상태(표 1)에 따라서 clasp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증례 1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clasp를 이용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2. 증례 2와 같은 경우에는 지대치 쪽으로 교합압을 많이 분산시켜



과장 신상완  
고대구로병원 치과

표 1. 지대치 및 잔존치조제 및 기타지지 조직의 건강도에 따른 분류

	지대치의 건강도	잔존치조제 및 지지조직의 건강도
증례 1	+	+
증례 2	+	-
증례 3	-	+
증례 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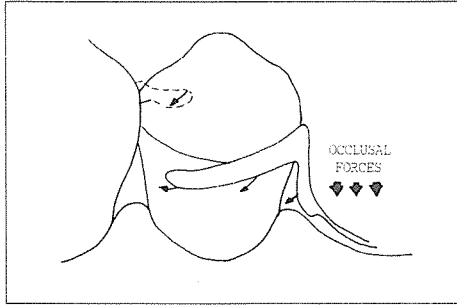


그림 1. RPA clasp

라고 볼 수 있다. 이 때에는 지대치를 splint하여도 지대치쪽을 보강하여서 binding clasp를 적용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국소의치 디자인에 있어서 몇가지 사항중에서 중요한 두가지를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하겠다.

4. 증례 4와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 나쁘기 때문에 어려운 case  
교합면에서 접근하는 clasp는 치

아의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치은에서 접근하는 clasp는 치조골이나 연조직의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clasp의 선택은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와 잔존치조제의 형태와 질을 고려해서 support를 어느쪽에서 많이 얻을 것인지를 결정해서 선택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clasp의 선택은 최선의 절충을 보아야 하며 더 문제점이 적은 쪽을 그리고 교합압을 어느쪽으로 분산할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게 좋겠다.

## Q : 임시보철물이 임프란트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부교수 조성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A** 첫째, 개체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임프란트 식립 후 약2년 정도가 지나야 임프란트 주위골의 밀도가 골자체의 밀도보다 높아지는 소위 말하는 remodelling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좀 덜 부여한다는 목적으로 골드시린더 대신에 레진시린더를 사용하여(이것은 가격이 싸니

다) 레진시린더를 연결하여 레진 임시보철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조된 금속구조물에 의하여 연결된 보철물보다 임프란트주위골에 힘이 덜 가하게 되어 임프란트의 실패를 적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프란트 한 개가 받는 힘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대합치가 의치인 경우에는 보철물장착 이후의 임프란트의 실패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적어도 임프란트주위골의 밀도가 여물어지기전까지는 임프란트보철물에 힘을 적게 가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